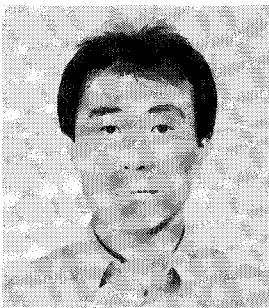


제가 목장경영을 하고 있는 곳은 광주에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써 이곳은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많으며 한우 및 비육농가도 상당수가 된다.

저의 경우는 올해 나이 33세로 일찌기 고등학교를

나는 유질항상 이렇게 했다.

관리자의 자세가 건강한 소를 만들고 양질의 원유가 생산된다



월봉목장 이 대 성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산13-8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했으나 어려운 가정 환경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고 군에 입대 생의 진로에 상당한 고민도 많이 했었다.

'84년 군을 필하고 현 함평군 낙우회 윤성치회장대 목장에서 일을 한 것이 동기가 되어 낙농에 입문 현재 까지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1년여 동안의 목부생활을 하면서 윤회장님의 따뜻한 배려로 젖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양관리 지식과 운영체계등 여러가지를 습득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의 목장을 임대하여 3년간을 또한 경험했는데 저에게는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 목장함에 있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 오던 중 '86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그 자금을 임대기간 동안 활용했지만 뚜렷한 성과도 없고 오히려 남의 돈을 빌려 꾸려나갈 정도였기에 실망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하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목장 임대가 끝날 무렵에는 나의 소가(송아지포함) 29마리로 늘었고 그중 15두를 판매하여 현 목장 부지를 마련하는데 이용했으며 나머지 14두를 활용 지금의 목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

'88~89년 한창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부지를 구입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 결과로 충분한 초지가 준비되지 못해 저의 목장에서는 자가 TMR 사료를 약 2년여 동안 실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급여방법, 기대효과 그리고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들을 간략하게나마 서술할까 한다.

자가 TMR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 드리면 우선 초지가 협소한 관계로 조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중 조금씩이나마 급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고 또한 기존의 방법대로 농후사료 위주로 할때의 문제점 즉 식체, 4위전위, 케토시스, 유열 등 각종 대사성 질병들이 다발했던 점과 산후 비유초기의 많은 산유량으로 인한 체중 감소의 심화등 기존의 방법으로 사양 관리 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실시하였다.

실시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원료를 구입 하는데 품목을 꾸준히 제때 공급받지 못한 것은 물론 부족한 경험으로 한 품목의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준비 급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못했던 점들이 여러 번 있었다.

지금은 균을 3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한꺼번에 급여한 결과 비육우가 되어 버리는 소가 여러마리였고 그 결과 번식장애, 난산등 문제점들이 많았다.

지금 저의 목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 TMR 사양기준과 배합 품목 및 첨가제 급여량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양기준

군	체 중	유 량	유 지 율
1	600kg	30~25kg	3.8%
2		25kg이하	
3		건 유	

급여품목 및 첨가제 급여량

품 목 명	급여량(kg)	비 고
벼 짚	3	○ 3월~5월 이타리안
파목쇄(옥수수)	2	라이그라스 청초 급여
알 팔 파 Q	1.5	○ 7월~9월 초 옥수수

알 팔 파 P	1.5	청예급여
맥 근	2	○ 12월~2월 옥수수 사일리지
소 맥 피	2	두당 5kg 급여
단 맥 피	1.5	○ 자가 TMR 사료 22.5
면 실	1	+ 농후사료 입의 대로(유량의 다소에 따라)
맥 주 박	7	
대 두 박	1	
계	22.5	
첨가제	인산칼슘 비피제 효모제 비타민 미량광물질	150~170g
	소 금	

이상 위의 품목을 하루 2회에 걸쳐 배합기에 혼합하여 야외 사조에서 자유 급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충해 줘야 할 것소에 대해서는 계류식 우사안에서 착유시 배합사료로 조절 급여하고 있다.

현재 위의 방법대로 실행해 오면서 느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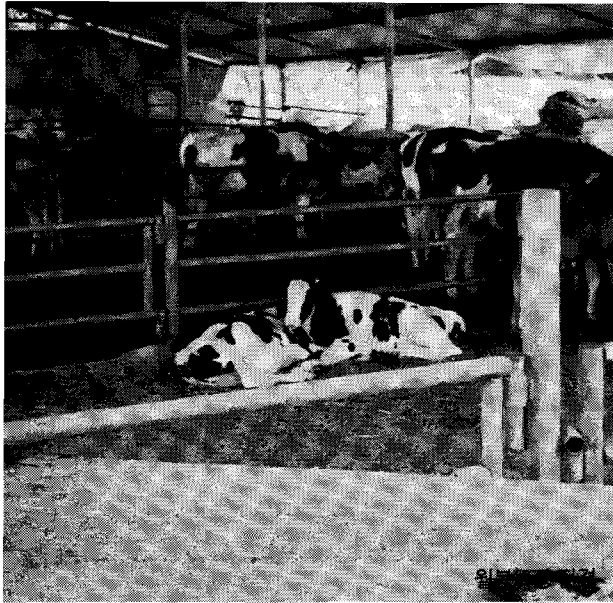
첫째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 소를 우사안으로 들어서 급여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루종일 운동장에서 자유 급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 비육곡선이 완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에 방법대로라면 비육초기에 유량이 많았다가 비육최고기가 지나면 유량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자가 TMR을 하면서 완만히 유지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세번째로 대사성 질병이 현저히 줄었다. 배합기에 완전 혼합하기 때문에 젓소가 편식하지 못하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장의 균을 여러곳으로 분리하여 관리 급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과 그 결과로 유량이 많거나 적은 소가 똑같이 같은 양을 먹기 때문에 살찌는 소가 있어 번식장애등 몇가지 문제점도 있다.

현재까지 해 오면서 개선할 점 이라면 완전 자가 TMR에 의존할게 아니라 기존의 방법을 지금의 방법과 비율을 5:5로 하되 조사료의 비중을 좀더 가중하여 급여할 수 있다면 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



요즈음 착유형태나 세척수 그리고 착유방법등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각각 다른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의 건강과 개체별 관리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며 착유자의 자세와 철저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때에 양질의 원유가 생산되리라 믿는다.

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000여평의 토지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약 2,000여평은 담근떡이로 주로 동절기에 이용하여 나머지는 청예로 활용하고 있다. 옥수수가 끝나면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전면 파종 봄부터 초여름까지 급여하여 그 나머지 기간은 알팔파 큐브등을 대체 급여하고 있는데 저의 계획이라면 토지를 좀 더 확보하여 연중 옥수수 사일레지를 배합비에 맞추어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저의 목장규모는 젖소 성우 22두중 18두를 착유 460kg의 우유를 매일유업 호남공장으로 납유하고 있으며, 초임우 5두, 육성우 13두, 비육소 10두를 포함 50두를 사육하고 있다.

착유우 두당 평균 유량은 24~26kg 생산되며 유지율은 3.6~3.8%, 올 6월부터 세균수에 의한 유대가 지급되고 있는데 위생등급에서는 초기에는 3만~8만으로 1등급을 받았지만 요즘들어서 14~20만으로 2등급의 가격을 받고 있다.

저의 경우는 계류식 파이프라인 착유 형태로서 다섯개의 물수건과 소독수로 맛사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체별로 각각 물수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못하고 있는 점과 몇 마리의 만성 유방염으로 인한 체세포수 증가, 그리고 소형 냉각기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냉각속도의 느낌이 원인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것들은 시정하고 교체한다면 좋은 등급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은 소가 건강하고 유방염에 걸리

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개체별 사양관리를 잘하는 것만이 최우선의 방법이라 여기고 있다.

요즈음 착유형태나 세척수 그리고 착유방법등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각각 다른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의 건강과 개체별 관리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며 착유자의 자세와 철저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때에 양질의 원유가 생산되리라 믿는다.

현재 우리 목장의 시설물은 30여평의 주택, 100여평의 계류식 축사, 약 50평의 운동장 그늘막이 2동,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2년전에 설치했으며 기자재는 35마력 트랙터, 경운기를 이용한 사료배합기, 소형트럭등을 구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50평의 육성, 비육우사를 시설 이용하고 있다.

지금도 부족하고 할 것은 많습니만 당장 자금 형편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조금씩 하나씩 생각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30~40두의 고능력 착유우를 확보 자동착유 시스템(텐담)으로 양질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현재 자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는 자가 TMR 방법을 연구, 보완하여 주위 농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이다.

끝으로 이런 글을 쓰게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대충 두서없이 간단하고 살핌없이 적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세하고도 정성스럽게 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